

농약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의 제언

농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약등록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15년이 경과된 품목의 안전성자료를 강화해야 하며 복제농약(원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강광표 / 소비자단체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사

등록 및 안전사용 관리방안을 강화해야 하며 농약제제용 부재료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대량사용 농약 안전성관리 강화

대량 사용 농약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사용량, 사용면적, 대상작물의 수, 연간 사용빈도 등에 따라 더욱 엄격한 안전성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 평가는 농산물의 안전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토양·하천수·지하수·환경생물 등 환경의 안전성, 사용자 특히 농업인의 안전성, 인접작물 및 후작물의 안전성, 사회적 안전성 등 종합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해야 한다.

입제농약 농업인 안전성 재평가

우리나라는 재배 면적이 좁고 살포기구가 제한적이어서 입제 농약의 사용비중이 매우 높아 10만톤 이상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은 아무 보호장비 없이 맨손으로 농약을 뿌리고 있어 오랜 시간 맨손으로 작업할 경우 농약에 의한 피부손상, 체내흡수 및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또 사용량의 많고 적음, 사용장소 및 방법, 해당성분의 독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사용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isk-cup” 개념에 따른 농약안전성 관리

동일 계통의 농약들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상 계통으로는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설폰닐우레아계, 아졸계, 피레스로이드계, 유기염소계 등이 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 미국의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작물별 사용농약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안전성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안전성 제고 위한 제언

현행 성인기준의 농약 안전성 평가방법을 농약에 민감한 어린이(체중 15kg이하)를 기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농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5~6월에 논주변, 하천, 상수원의 수중 농약잔류량 모니터링을 광범위하게 매년 실시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호르몬 의심 농약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연구, 정책사례 등의 적용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 **농약정보**